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정 숙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eong-Sook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sin University, Busan 606-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ietary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0 to November 30, 2010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subjects were mainly from China (58.8%), Vietnam (14.7%), Philippines (8.8%) and Japan (7.4%). The longer they had resided in Korea, the lower their preference they had for Korean food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ference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y. The subjects reported that their consumption of cereals (36.7%), meats (40.0%), fish (50.8%), milk and dairy products (47.4%), vegetables (48.3%), fruits (44.8%), fat and oil (29.1%) and beverages (32.8%) were increased after immigration. They usually obtained information about Korean foods from family (26.5%) and television and internet (26.5%). Sixty four point seven percent of the females ate 'everyday' Korean foods and 30.9% ate their home country foods every day. A higher will for learning Korean foods, intake frequency and age resulted in a higher adaptation of Korean dietary life. Lower marital conflict resulted in higher adap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provide systematic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o adapt to Korean dietary life.

Key words: dietary adaptation, female immigrant, multi-cultural family

서 론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활발한 국제교류와 더불어 인구 구성에도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인 113만 92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고, 국내 총 결혼 건수 326,104건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은 10.5% 수준인 34,235건이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은 26,274건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다(1).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도 다양한 구조로 변화되었고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란 각 나라의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를 연결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해서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데, 결혼이주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2).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 생활습관의 문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이질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매우 크다(3-5).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할 당면 과제가운데 하나가 음식문화의 적응이다. 식품섭취는 개인의 생명유지 및 건강, 가족화합, 자녀양육 등 광범위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여성들의 음식에 대한 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잘 먹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부로서의 역할 문제 및 가족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6-8). 결혼이주여성의 식문화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향후 건강상태 및 질병유병율과도 관련성이 있고, 가정의 화목,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녀양육,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구축 및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음식문화의 적응을 도와주는 방안의 구축은 절실하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

고 있는 가운데 식생활 관련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검진센터(9), 다문화가족지원센터(7,1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1), 건강가정지원센터(12), 보건소(13), 영양플러스 사업(14), 한국어교실(12)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식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음식 선호도, 식생활 적응정도, 한국음식 학습의지, 식품섭취빈도,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인식도, 부부갈등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인 식생활 및 영양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사전면담을 약속한 후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구대상의 출신국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였다. 방문면접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150명이었고, 모든 문항에 온전히 응답한 대상자 136명을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사항, 신장과 체중, 한국식생활 적응정도, 부부갈등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신장과 체중은 신장체중 자동측정기(JENIX DS-102, Dongsan Jenix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사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Body Mass Index(BMI)를 구하였다. BMI는 체중(kg)/신장(m)²으로 계산하였다.

한국 식생활 적응 정도에 관한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7,9, 13)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의 내용은 Kim과 Lee(13), Han 등(15), Jang 등(16), Lee와 Kim(17)의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 한국음식 학습의지 정도, 한국음식 섭취빈도, 고향음식 섭취빈도, 이주 후의 식품섭취량의 변화,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난이도 인식정도, 정보수집경로, 한국음식 선호여부, 요리 가능여부, 학습의욕 여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음식 선호여부, 요리 가능여

부, 학습의욕 여부는 실물모형과 사진을 준비하여 직접 보여 주면서 조사를 행하였다.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좋아한다' 5점, '좋아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좋아하지 않는다' 2점,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난이도 인식은 '매우 어렵다' 5점, '어렵다' 4점, '보통이다' 3점, '쉽다' 2점, '매우 쉽다'를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부갈등은 Kim의 척도(3)를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갈등, 한국음식 학습의지, 한국음식 적응 정도는 '매우 그렇다' 5점, '비교적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조사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 간의 유의성 및 상관성은 χ^2 -test,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여 파악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나이, 한국식생활을 배우려는 의지, 한국음식 섭취빈도, 부부갈등이 식생활적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출신국가는 중국이 54.4%(조선족 4.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4.7%), 필리핀(8.8%), 일본(7.4%)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9.7%(5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5.0%)', '20대(23.5%)', '50대 이상(11.8%)'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7~10년'이 가장 많았고(18.4%) '10~15년(15.5%)', '3~5년(13.2%)', '15년 이상(11.1%)'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52.9%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20.6%, '대학교 이상 졸업' 17.7%로 나타났다. 4.4%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은 주로 전업주부(77.9%, 106명)였으며, '계약직' 8.8%(12명), '상업' 3.7%(5명), '언어강사' 2.2%(3명)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60.3%(82%)로 가장 많았고, '대가족' 19.1%(26명), '자녀 없는 부부' 14.0%(19명)이었다. 가구당 월 소득은 '101~200만원'이 33.8%, '201~300만원' 22.1%, '100만원 이하' 13.2%이었으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월 소득을 모르는 주부도 26.4%(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신장은 20대가 평균 159.9 cm로 50대 이상(154.2 cm)보다 유의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umber (%)
Original nationality	China	74 (54.4)
	Vietnam	20 (14.7)
	Philippines	12 (8.8)
	Japan	10 (7.4)
	Others	20 (14.7)
Age	20'	32 (23.5)
	30'	54 (39.7)
	40'	34 (25.0)
	Over 50	16 (11.8)
	Length of residence	Less than 1 year
1~3 years		9 (6.6)
3~5 years		18 (13.2)
5~7 years		9 (6.6)
7~10 years		25 (18.4)
10~15 years		21 (15.5)
15 years and longer		15 (11.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6 (4.4)
	Middle school	28 (20.6)
	High school	72 (52.9)
	College	6 (4.4)
	University	24 (17.7)
Occupation	Housekeeping	106 (77.9)
	Part-time employee	12 (8.8)
	Commerce	5 (3.7)
	Language teacher	3 (2.2)
	Others	10 (7.4)
Family type	Couple without children	19 (14.0)
	Couple with children	82 (60.3)
	Extended family	26 (19.1)
	Others	9 (6.6)
Monthly income (10,000 won)	Under 100	18 (13.2)
	101~200	46 (33.8)
	201~300	30 (22.1)
	301~400	2 (1.5)
	401~500	4 (3.0)
Not know	36 (26.4)	
Total		136 (100.0)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eight (cm)	Weight (kg)	BMI ¹⁾
20's	159.9±5.5 ^{2)a3)}	52.7±6.1 ^b	21.5±3.3 ^{NS}
30's	155.7±6.0 ^{ab}	53.9±7.4 ^{ab}	21.6±3.0
40's	156.6±4.9 ^{ab}	54.5±8.9 ^{ab}	21.9±2.3
Over 50	154.2±4.5 ^b	56.3±8.2 ^a	23.6±2.5
Mean	156.5±5.1	53.6±7.3	21.9±2.8

¹⁾BMI (Body Mass Index)=weight(kg)/ height(m)²

²⁾Mean±SD.

³⁾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으로 높았으나 체중은 50대 이상이 평균 56.3 kg으로 20대 (52.7 kg)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BMI는 21.94이었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BM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BMI 분포는 저체중 7.4%(10명), 정상체중 58.8%(80명), 과체중 21.3%(29명),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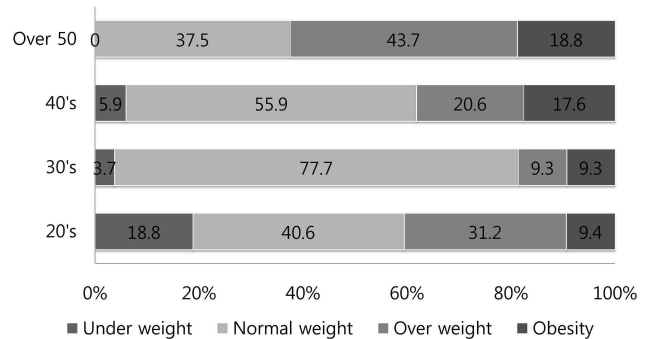


Fig. 1. Body mass index of the subjects.

만 12.5%(17명)로 나타났다. 연령별 BMI 분포는 20대에서는 과체중 31.2%, 비만 9.4%이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과체중 43.7%, 비만 18.8%의 분포를 보였다(Fig. 1).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한국음식 학습의지

조사대상자의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한국음식 학습의지 점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0대'가 4.50으로 가장 높았으나 '30대' 4.24, '40대' 4.07, '50대 이상' 3.2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를 보였다. 거주 연한으로 볼 때는 '1년 이하 거주'가 가장 높은 선호도(4.75)를 보였고 '5~7년 거주'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3.70)를 보였다.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학습의지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과 '15년 이상'된 주부가 가장 높은 학습의지를 보인 반면, '5~7년'된 주부의 학습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선호도나 학습의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일본출신자의 경우 선호도는 가장 낮은 반면 학습의지는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 비교했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높은 선호도와 학습의지를 나타낸 반면 중학교 졸업자가 가장 낮은 선호도와 학습의지를 보였다.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인식, 정보수집 경로

조사대상자의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인식과 정보수집 경로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전체응답자의 2.2%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27.2%가 '어렵다', 51.5%가 '보통이다', 19.1%는 '쉽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식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양념 비율 맞추기(31.6%)~재료준비(11.8%)~매운맛 적응하기(9.6%)~용어 이해하기(8.8%)~설거지(4.4%)' 순이었으며, '어려운 점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29.4%이었다.

한국음식에 관한 정보는 주로 가족(26.5%)과 TV, 인터넷(26.5%)에서 얻으며 복지관이나 보건소(13.2%), 남편(10.3%), 요리책(10.3%) 등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기를 원하는 주제는 '밑반찬 만들기(18.0%)'가 가장 많았고 '절기음식(13.5%)', '국, 찌개 만들기(12.5%)', '한국식문화(12.0%)', '양념 만들기(11.5%)', '김치(11.0%)', '제사음식 만들기(11.0%)'의 순이었다(Fig. 2).

Table 3. Preference and will for learning on Korean food by age, length of residence, nationality and education level of the subjects

		Preference	Will for learning
Age	20's	4.50±0.67 ^{1)NS}	3.82±0.98 ^{NS}
	30's	4.24±0.59	4.03±0.75
	40's	4.07±0.76	3.78±0.78
	Over 50	3.29±0.75	3.58±0.69
Length of residence	Less than 1 year	4.75±0.50 ^{a2)}	4.32±0.95 ^a
	1~3 years	4.33±0.78 ^{ab}	4.00±0.63 ^{ab}
	3~5 years	4.01±0.58 ^{ab}	4.12±1.12 ^{ab}
	5~7 years	3.70±0.67 ^b	3.20±1.13 ^b
	7~10 years	3.83±0.93 ^{ab}	4.00±0.79 ^{ab}
	10~15 years	4.30±0.67 ^{ab}	3.70±1.16 ^{ab}
	15 years and longer	4.17±0.87 ^{ab}	4.33±0.82 ^a
Nationality	China	3.86±0.51 ^{NS}	4.00±0.80 ^{NS}
	Vietnam	4.01±0.59	4.29±0.65
	Philippines	4.00±0.01	4.17±0.56
	Japan	3.50±0.57	4.50±0.57
	Others	4.02±0.66	4.11±0.6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00±0.00 ^a	4.75±0.11 ^a
	Middle school	3.71±0.82 ^b	3.50±0.71 ^b
	High school	4.22±0.75 ^{ab}	4.08±0.97 ^{ab}
	College <	4.11±0.73 ^{ab}	4.01±0.57 ^{ab}

¹⁾Mean±SD.

²⁾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Table 4 . Perception of Korean foods and source of information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umber (%)
Cooking method	Very complicated	3 (2.2)
	Complicated	37 (27.2)
	Fair	70 (51.5)
	Easy	20 (14.7)
	Very easy	6 (4.4)
Reason of difficulty on diet	Spice making	43 (31.6)
	Food preparation	16 (11.8)
	Adaptation to hot taste	13 (9.6)
	Language	12 (8.8)
	Dishwashing	6 (4.4)
	Foodstuff shopping	4 (2.9)
None	40 (29.4)	
Source of information	Family members	36 (26.5)
	TV, internet	36 (26.5)
	Welfare center, public health center	18 (13.2)
	Husband	14 (10.3)
	Cooking book	14 (10.3)
	Friends, neighbors	8 (5.9)
	Others	12 (8.8)
Total		136 (100.0)

한국음식 및 고향음식 섭취빈도

조사대상자의 한국음식 및 고향음식 섭취빈도는 Table 5와 같다. 조사대상자가 한국음식을 먹는 빈도는 '20대'는 '일주일에 3~4회 먹는다'가 50.0%, '매일 먹는다'가 43.8%로 응답하였으나, '30대'의 66.7%, '40대'의 88.2%, '50대'의 50.0%가 '매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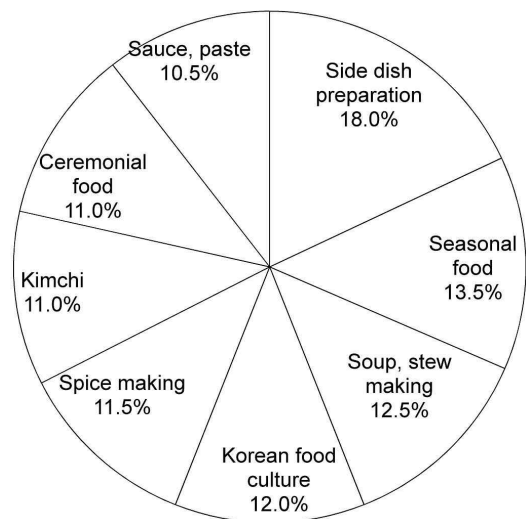


Fig. 2. Education subject of the subjects want to learn.

다(p<0.001).

본 조사대상자가 고향음식을 먹는 빈도는 '매일 먹는다 (30.9%)', '일주일에 1~2회 먹는다(29.4%)'는 응답이 많았고 '전혀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6.2%이었다. '20대'에 비해 '30대', '40대'에는 줄어들다가 '50대'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음식을 먹는 횟수가 30, 40대에 늘어나다가 '50대'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식품섭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식품섭취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Table 5. Frequency of eating Korean food and home country food of the subjects

		20's	30's	40's	Over 50's	Total	N (%)
Korean food	Everyday	14 (43.8)	36 (66.7)	30 (88.2)	8 (50.0)	88 (64.7)	28.22***
	3~4 times/week	16 (50.0)	12 (22.2)	4 (17.8)	4 (25.0)	36 (26.4)	
	1~2 times/week	2 (6.2)	4 (7.4)	0 (0.0)	4 (25.0)	10 (7.4)	
	1~2 times/month	0 (0.0)	2 (3.7)	0 (0.0)	0 (0.0)	2 (1.5)	
Home country food	Everyday	12 (37.5)	12 (22.21)	10 (29.5)	8 (50.0)	42 (30.9)	12.11
	3~4 times/week	4 (12.5)	4 (7.4)	0 (0.0)	0 (0.0)	8 (5.9)	
	1~2 times/week	10 (31.2)	16 (29.7)	8 (23.5)	6 (37.5)	40 (29.4)	
	1~2 times/month	2 (6.3)	12 (22.2)	8 (23.5)	2 (12.5)	24 (17.6)	
	Not eat	4 (12.5)	10 (18.5)	8 (23.5)	0 (0.0)	22 (16.2)	
Total		32 (100.0)	54 (100.0)	34 (100.0)	16 (100.0)	136 (100.0)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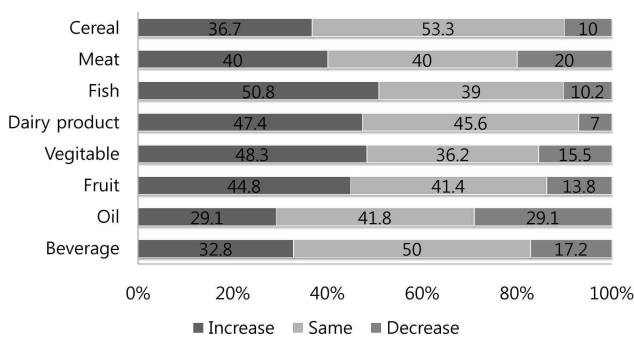


Fig. 3. Changes in food intakes of the subjects after immigration to Korea.

자의 비율은 곡류 10.0%, 육류 20.0%, 생선류 10.2%, 유제품 7.0%, 야채류 15.5%, 과일류 13.8%, 유지류 29.1%, 음료 17.2%에 불과하였고,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곡류 36.7%, 육류는 40%, 어류는 50.8%, 우유 유제품 47.4%, 야채류 48.3%, 과일류 44.8%, 유지류 29.1%, 음료 32.8%에 달하였다.

한국음식 선호여부, 요리가능 여부, 학습욕구 여부

조사대상자에게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 부식, 후식류에 대한 선호 여부, 요리가능 여부, 학습욕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음식은 비빔밥(68.6%), 미역국(67.2%), 시금치나물(65.7%), 배추김치(65.7%), 불고기(64.2%), 된장국(62.8%), 김치찌개(62.8%), 잡채(62.8%), 갈비찜(61.3%) 순이었다. '요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음식은 미역국(48.9%), 김치찌개(46.0%), 생선구이(43.1%), 김치볶음밥(41.6%), 시금치나물(40.9%), 된장국(40.1%), 잡채(38.7%), 콩나물무침(35.8%), 콩나물국(35.8%), 두부조림(34.3%)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음식은 육개장(32.8%), 닭찜(32.8%), 갈비찜(31.4%), 물김치(31.4%), 오이소박이(29.9%), 생선조림(28.5%), 식혜(28.5%), 열무김치(27.0%), 낙지볶음(27.0%), 콩조림(25.5%), 장조림(25.5%), 깍두기(25.5%), 빈대떡(25.5%), 북어국(25.5%), 추어탕(25.5%), 삼계탕(24.1%) 순이었다.

Table 6. Actual adaptation to Korean food of the subjects

	Preferred			Cook well			Desired to learn		
	Preferred	Cook well	Desired to learn	Preferred	Cook well	Desired to learn	Preferred	Cook well	Desired to learn
Bibimbap	94 (68.6)	53 (38.7)	22 (16.1)	Munamul	63 (46.0)	39 (28.5)	12 (8.8)		
Kimchibogumbap	80 (58.4)	57 (41.6)	16 (11.7)	Dubujorim	82 (59.9)	47 (34.3)	14 (10.2)		
Guksu	67 (48.9)	41 (29.9)	12 (8.8)	Mulchijorim	70 (51.1)	39 (28.5)	23 (16.8)		
Naengmyeon	70 (51.1)	22 (16.1)	23 (16.8)	Kongjorim	51 (37.2)	10 (7.3)	35 (25.5)		
Ddukjuk	61 (44.6)	39 (28.5)	20 (14.6)	Gamjajorim	56 (40.9)	27 (19.7)	23 (16.8)		
Manduguk	72 (52.6)	43 (31.4)	14 (10.2)	Nakjijbokum	53 (38.7)	14 (10.2)	37 (27.0)		
Miyeokjuk	92 (67.2)	67 (48.9)	10 (7.3)	Buchimgae	70 (51.1)	37 (27.0)	19 (13.9)		
Bueoguk	55 (40.1)	22 (16.1)	35 (25.5)	Bindaedduk	39 (28.5)	15 (10.9)	35 (25.5)		
Kongnamulguk	80 (58.4)	49 (35.8)	10 (7.3)	Bulgogi	88 (64.2)	33 (24.1)	17 (12.4)		
Yukgaejang	59 (43.1)	12 (8.8)	45 (32.8)	Saengsunkui	78 (56.9)	59 (43.1)	8 (5.8)		
Doenjanguk	86 (62.8)	55 (40.1)	14 (10.2)	Pyeonyuk	53 (38.7)	18 (13.1)	20 (14.6)		
Gonguk	72 (52.6)	22 (16.1)	31 (22.6)	Baechukimchi	90 (65.7)	41 (29.9)	31 (22.6)		
Samgyetang	82 (59.9)	37 (27.0)	33 (24.1)	Kkakdugi	70 (51.1)	31 (22.6)	35 (25.5)		
Chueotang	49 (35.8)	14 (10.2)	35 (25.5)	Yulmukimchi	72 (52.6)	27 (19.7)	37 (27.0)		
Doenjangjjigae	78 (56.9)	49 (35.8)	16 (11.7)	Mulkimchi	61 (44.5)	10 (7.3)	43 (31.4)		
Kimchijigae	86 (62.8)	63 (46.0)	10 (7.3)	Oisobaki	74 (54.0)	16 (11.7)	41 (29.9)		
Dakjjim	67 (48.9)	23 (16.8)	45 (32.8)	Japchae	86 (62.8)	53 (38.7)	18 (13.1)		
Galbijjim	84 (61.3)	29 (21.2)	43 (31.4)	Jangjorim	78 (56.9)	20 (14.6)	35 (25.5)		
Kongnamul	78 (56.9)	49 (35.8)	12 (8.8)	Saengsunjorim	76 (55.5)	23 (16.8)	39 (28.5)		
Hobaknamul	70 (50.1)	43 (31.4)	9 (6.6)	Songpyun	53 (38.7)	10 (7.3)	31 (22.6)		
Sigumchinamul	90 (65.7)	56 (40.9)	8 (5.8)	Sikhae	69 (50.3)	18 (13.1)	39 (28.5)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f age,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eating frequency, will for learning and marital conflict

Factors	Dietary adaptation	
	b	β
Age	0.226	0.273*
Education level	0.007	-0.011
Monthly income	0.014	0.037
Eating frequency	0.329	0.289*
Willing for learning	0.261	0.327**
Marital conflict	-0.189	-0.241*
Constant	3.988	
R ²	0.362	
F	7.142***	

*p<0.05, ***p<0.001.

식생활적응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

조사대상자의 나이, 한국식생활을 배우려는 의지, 섭취빈도, 부부갈등이 식생활적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든 독립변인들이 식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으며, 배우려는 의지($\beta=0.327$, $p<0.01$), 섭취빈도($\beta=0.289$, $p<0.05$), 나이($\beta=0.273$, $p<0.05$), 부부갈등($\beta=-0.241$,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이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한국음식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식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통계청자료(1)에 의하면 2010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총 26,274건으로 중국 36.6%(9,623건), 베트남 36.6%(9,623건), 필리핀 7.3%(1,906건), 일본 4.5%(1,193건)의 순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일본이 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부산이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Kim과 Lee(14)의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Jang(12)은 3년 미만이 31%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자는 3년 미만 거주자는 13.2%로 낮은 비율이었던 반면 7년 이상 거주자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어교실이나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에 교육 및 상담을 받으러오는 이주초기의 여성들이 많았던 반면, 본 연구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폭이 넓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439,413원인 것에 비추어 본 조사대상자 가정의 13.2%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3.8%가 101~200만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정이 저소득층이 많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26.4%는 '월 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가정 경제에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이주여성

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18)와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여성보다 신장, 체중의 평균이 낮았으며 BMI도 낮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체격이 한국여성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자국과는 다른 음식의 맛, 요리법, 식재료, 식습관 등의 차이에서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11)과 저소득층에 속한 비율이 높으므로(Table 1)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식생활 관리가 힘든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9)이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BMI가 20.8로 본 조사대상자보다 다소 낮았지만, Kim과 Lee(13)가 대구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2.51로 본 조사대상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18)에서 한국여성의 비만율이 '20대' 14.3%, '30대' 19.6%, '40대' 27.2%, '50대' 36.7%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본 조사대상자의 비만 유병율이 낮다고는 해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의 비율이 증가하고, '50대 이상'에서 과체중 43.7%, 비만 18.8%의 비율을 보이므로 중년기에 접어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초기와는 달리 한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한국 식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음식을 익숙하게 느끼므로 선호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국생활이 길어짐에 따른 자국음식에 대한 향수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Park과 Moon(7)도 전남지역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음식에 만족하고, 길수록 만족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Kang(19)은 20대보다 30대, 40대의 한국음식 선호도가 높고,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구성, 거주기간 분포와 조사지역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생활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5~7년'에는 한창 육아에 매달려야하는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할애할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선호도나 학습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5년 이상'인 경우는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 한국음식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습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에서 개최하는 요리교실도 거주기간을 감안한 반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과는 다른 자극적인 한국음식의 맛, 생소한 조리법, 식재료, 용어의 이해 등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ang(19)은 음식의 조리법, 기호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Oh(2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적응 조사에서 일본과 필리핀 출신자가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자보다 식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주여성이 고등하고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여성보다 적응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부족하므로 식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20)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식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음식을 더 선호하고 더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Kim과 Lee(13)는 20대(65.9%), 30대(47.2%)는 '시댁식구'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으나, 50대는 식당, 학원, 복지관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서울 경기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조사한 Jang(12)도 한국음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 '시어머니'가 39%, '남편' 29%, '친구나 이웃주민' 13%의 순이라고 보고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시어머니나 남편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다양한 매체를 만족스럽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잘못된 영양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입국초기부터 체계적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라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므로 그에 맞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건소나 복지관 같은 기관들의 이용경로나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몰라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Kim과 Lee(13)의 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음식 섭취빈도는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음식을 '매일 먹는다'가 61.8%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 64.7%의 조사대상자가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조사에서 '50대'의 경우 25.0%는 '1주일에 1~2회 먹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20대보다 30, 40대는 한국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지만 50대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Jang(12)이 서울 경기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신국 음식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의 매일 섭취' 11.0%, '1주일에 2~3회' 23.0%, '1주일에 1회' 20.0%, '한달에 2~3회' 15.0%, '한달에 1회' 13.0%, '거의 먹지 않음' 18.0%로 나타났으며 출신국이나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Jang(12)의 조사대상자는 결혼기간이 7년 이상인 주부가 54%, 1년 미만은 8%이므로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한창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는 시기의 주부들이 많으므로 출신국 음식의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1)은 이주초기에는 자국 음식을 먹는 빈도가 높았으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본국의 음식 섭취 빈도는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Park(10)은 거주기간

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이 출신국 음식 섭취에 있어 이주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음식에 적응이 되어 출신국 음식을 먹는 빈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가족들의 배려 부족이 원인이 된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도록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 가운데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식품섭취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곡류 36.7%, 육류는 40%, 어류는 50.8%, 우유 유제품 47.4%, 야채류 48.3%, 과일류 44.8%, 유지류 29.1%, 음료 32.8%에 달하였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보다 한국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므로 식생활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Mohan(21)은 더 부유한 국가로의 이민은 신체활동 감소 및 에너지 섭취증가로 인한 체중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9)이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국으로 온 후 육류, 생선류,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의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Nan과 Katherine(6)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모든 식품군의 섭취량이 증가한 반면 중국 전통음식의 섭취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음식들이 특별한 요리가 아닌 김치, 육개장, 닭찜, 갈비찜, 생선조림 등으로 나타난 것은 계량법, 불 조절, 기본재료 손질법, 기본 육수 만들기, 기본양념 만들기 등 한국음식 조리의 기본을 완전히 습득하고, 다양한 음식과 조리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때, 1회성 특강이 아닌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요리교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기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주기간별로 이주여성들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국사회 주부로서의 역량 강화에 효율적일 것이며, 결혼연한이 높고 나이가 많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식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식생활관리를 해나가고 가정경영에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역량강화 지지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Han(22)의 보고에서 이주여성들이 출신국에서 익숙하던 음식종류에 적응이 쉽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음식을 체험하고 조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맛과 양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체류기간이 짧은 조사대상자들은 주체적인 식품선택이 힘들어 배우자 가정의 식습관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짧고 나이가 어린 결혼이주여

성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출신국의 문화와 식습관을 인정하고 배려해 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연구에서 한국의 식생활 문화 적응도와 부부갈등이 음의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23)로 미루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적응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이해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식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주부들의 식생활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 및 영양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자녀의 성장발육과 관계가 깊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가족통합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게 영양교육과 식생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요청된다.

요 약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적응을 위해 식생활 및 영양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134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신국가는 중국이 58.8%(조선족 4.4%)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4.7%), 필리핀(8.8%), 일본(7.4%)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9.7%(5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5.0%)', '20대(23.5%)', '50대 이상(11.8%)'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7~10년'이 가장 많았고(18.4%) '10~15년(15.5%)', '3~5년(13.2%)', '15년 이상(11.1%)'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52.9%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주로 전업주부(77.9%, 106명)이었다. 가구당 월소득은 '101~200만원'이 33.8%, '201~300만원' 22.1%, '100만원 이하' 13.2%이었으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월 소득을 모르는 주부도 26.4%(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BMI는 21.94이었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BM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0대'가 4.50으로 가장 높았으나 '30대' 4.24, '40대' 4.07, '50대 이상' 3.2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를 보였다. 거주연한으로 볼 때는 '1년 이하 거주'가 가장 높은 선호도(4.75)를 보였고 '5~7년 거주'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3.70)를 보였다.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학습의지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과 '15년 이상'된 주부가 가장 높은 학습의지를 보인 반면, '5~7년'된 주부의 학습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선호도나 학습의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음식에 관한 정보는 주로 가족(26.5%)과 TV, 인터넷

넷(26.5%)에서 얻으며 복지관이나 보건소(13.2%), 남편(10.3%), 요리책(10.3%) 등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한국음식을 먹는 빈도는 '20대'는 '일주일에 3~4회 먹는다'가 50.0%, '매일 먹는다'가 43.8%로 응답하였으나, '30대'의 66.7%, '40대'의 88.2%, '50대'의 50.0%가 '매일 먹는다'고 응답하여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조사대상자가 고향음식을 먹는 빈도는 '매일 먹는다(30.9%)', '일주일에 1~2회 먹는다(29.4%)'는 응답이 많았고 '전혀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6.2%이었다.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식품섭취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곡류 36.7%, 육류는 40%, 어류는 50.8%, 우유 유제품 47.4%, 야채류 48.3%, 과일류 44.8%, 유지류 29.1%, 음료 32.8%에 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음식은 육개장(32.8%), 닭찜(32.8%), 갈비찜(31.4%), 물김치(31.4%), 오이소박이(29.9%), 생선조림(28.5%), 식혜(28.5%), 열무김치(27.0%), 낙지볶음(27.0%), 콩조림(25.5%), 장조림(25.5%), 각두기(25.5%), 빈대떡(25.5%), 북어국(25.5%), 추어탕(25.5%), 삼계탕(24.1%) 순이었다. 자신이 한국음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한국음식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식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식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영양교육과 식생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 헌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2010 Annual report on live birth and death statistics. <http://www.index.go.kr>.
2. Lee YB, Lee YK. 2009.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marriage immigrant by self-differentiation. *Korean J Family Social Work* 26: 63-86.
3. Kim O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J Family and Culture* 18: 63-106.
4. Kim SK, Lee CJ. 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 Family Welfare* 15: 5-20.
5. Lee AR. 2010. The case study on understanding and adjustment about the family living culture in marriage emigration females—focused on mothers in a day-care center in Seoul. *Korean J Family Resource Management* 14: 299-321.
6. Nan LV, Katherine LC. 2004. Dietary pattern change and acculturation of Chinese Americans in Pennsylvania. *J Am Diet Assoc* 104: 771-778.

7. Park HM, Moon ST. 2008.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Agricultural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40: 69-91.
8. Park YS, Chung YS. 2005.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Korean J Food Culture* 20: 35-43.
9.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Whang JY. 2009.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 22-30.
10. Park YI. 2009.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wives adapting to Korean cuisine and dietary patterns.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 13-75.
11. Kim JE, Kim JM, Seo SH. 2011.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a multi-cultural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immigrants and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Korean J Nutr* 44: 312-325.
12. Jang BS. 2009. A study on dietary life of female immigrants. *M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 16-37.
13. Kim JM, Lee NH. 2009.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oc* 15: 405-418.
14. Lee YO. 2011. Status of diet life and nutritional education of immigrants women internationally marri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M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Korea. p 126-130.
15. Han GJ, Lim YS, Kim HR. 2007. Resident survey evaluating the degree of value placed on traditional Korean foods in the Kyunggi and Kangwon areas of Korea.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3: 124-139.
16. Jang DJ, Kim SN, Kim SH, Lee KK, Lee JH. 2005. Survey of consumer perception for derivation of superior factors in various Korean traditional food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1: 780-812.
17. Lee JS, Kim SJ. 2010. A comparative study on 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classified by age in Busan. *Korean J Community Nutr* 15: 351-360.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200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orea. p 442-448.
19. Kang IJ. 2010. A survey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life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yongsan, Korea. p 4-39.
20. Oh KS. 2010.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with dietary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p 12-55.
21. Mohan V. 2004. Why are Indians more prone to diabetes? *J Assoc Physicians India* 52: 468-474.
22. Han YH. 2010.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 28-58.
23. Yoon HS. 2005.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Filipina wives in rural Korea. *Korean J Local History & Culture* 8: 299-339.

(2011년 12월 14일 접수; 2012년 2월 13일 채택)